

박은식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성격과 영향력*

황재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 Study on *An Chungun jeon* Written by Park Eun-sik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

Hwang, Jae-moo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July 5 2016
Revised Sept 19 2016
Accepted Sept 28 2016

Keywords:

Park Eun-sik, Biography, An Chungun jeon (安重根傳), Mango-euisa An Chungun jeon, Aegukhon (Patriotic Spirit).

주제어:

박은식, 전기문학, 안중근전, 만고의사 안중근전, 애국혼.

ABSTRACT

Park Eun-sik is an intellectual who lived in the tumultuous period of cultural transition. Therefore he wrote works under the environment which the new and old cultural devices were mixed up.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would clarify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his *An Chungun jeon* (安重根傳) and elucidate the influence. *An Chungun jeon* is not a orthodox piece, although entitled by traditional type, because it has some peculiarities which is not unseen in ordinary works. For example it concentrat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foreign situation. And it wa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unlike his precedent works. Those transformations could make his work contain more plentiful anecdotes as a result. *An Chungun jeon* was translated into vernacular Korean several times and utilized as references of works in those days. It was translated as a newspaper serial in 1920, and published by another newspaper company in 1917. The film *Aegukhon* (Patriotic Spirit; 1928), made by Koreans in Shanghai, was said to have been based on it. It is clear that *An Chungun jeon* was accepted as a representative of reliable biographies in those days.

국문초록

박은식은 과도기의 인물이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지닌 문학사적 성격을 해명하고, 이후 텍스트에서의 수용 양상을 통해 그 영향력의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안중근전>은 한문 산문 갈래인 '전'을 표방하면서도 인물의 생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당대의 정세를 담아내려 하였다. 중국인 독자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고 한국사에 대해 더 상세히 서술해야 했다. 이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일화와 역사관을 보다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안중근전>은 한국어로 번역되고 영화 제작에 활용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번역의 사례로는 『독립신문』과 김하구의 <만고의사 안중근전>이 있고, 활용의 사례로는 김택영의 <안중근전>과 영화 <애국혼>이 있다. 번역에서는 번역자의 의도에 따른 축약, 첨가, 배제 등이 확인된다. 창작에 활용한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갈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당대에 가장 신뢰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08-361-A00007),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5.10.30)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hwajm@snu.ac.kr

I. 서론

「夢拜金太祖」의 서문을 쓴 尹世復은, 朴殷植(1859~1925년)을 “新舊交換時代”(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2: 42)의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신구교환시대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기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두 개의 시대에 관여하면서 때로는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은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망명지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더욱 복잡하다. 국내에서는 梁啓超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소개해야 했고, 망명지에서는 직접 외국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려야 했다. 신문, 잡지, 교과서 등과 같이 매체가 달라지고 예상독자층이 바뀌면, 그에 따라 문체와 내용 수준을 달리해야 했다. 교육자, 언론인, 역사가, 정치인, 문인으로서의 활동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았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박은식이 남긴 다방면의 저작은 실제 성취 이상으로 높이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그렇지만 평가가 사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신구교환시대’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실증적인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박은식의 작품목록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 제기는 그러한 전반적 사정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¹⁾ 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박은식 특유의 문학론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서사건국지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牛林杰(1999: 98-100)은 그 내용이 梁啓超의 소설론을 인용 또는 차용한 것임을 지적하였고, 서여명(2007)은 1902년 中國華洋書局 간행본에 실린 趙必振(1872~1956)의 「政治小說瑞士建國誌序」에서 상당한 부분을 인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손성준(2013)은 단행본보다 5개월 앞서서 일부 자구가 다른 서문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바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검토한 바 있다. 요컨대 실제 저작 여부, 선행 텍스트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박은식의 전기문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물을 다룬 사례인 <안중근전>의 경우에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텍스트의 문제가 존재한다. 박은식의 문학을 다룬 초기 연구에서는 상해판 『독립신문』에 실린 국한문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양선(1984:

1) 박은식의 저작은 『박은식전서』(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편, 1975)와 『백암박은식전집』(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에서 정리된 바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논설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작가 추정의 오류를 지적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의 사례가 있다. 노관범 (2002). 대한제국기 박은식 著作目錄의 재검토,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황재문 (2004). 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노관범 (2007).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15-116)과 이경선(1985: 335-338)은 당시 연구대상으로 삼은 텍스트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를 펴지 못한 바 있다. 또 한문본의 발굴 이후에는 안중근이라는 입전 대상 인물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이 때문에 <안중근전>이라는 텍스트 자체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이 작품을 번역하거나 참고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번역이나 활용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중근전>의 텍스트가 지닌 형식과 내용을 점검하여 “신구교환시대”의 산물로서 지닌 특성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중근전>이 이후의 작품들에 끼친 영향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사실 안중근은 1910년 전후의 한국 및 동아시아 전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다룬 문학 작품들은 당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윤병석, 1998; 황재문, 2007). 각종 신문기사나 구전 자료까지 고려한다면, 그 텍스트의 범위와 양은 더욱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식의 <안중근전>은 당시의 안중근 관련 기록과 서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만한데, 이는 <안중근전>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텍스트 존재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번역이나 참조의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되는 후행 텍스트가 다수 존재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²⁾ 이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지닌 영향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되는데, 본고에서는 그 양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안중근전>의 영향력을 다루고자 한다면 독자에 대한 영향력과 후행 작품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후자에 대해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인 독자들의 반응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검토한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지만(김춘선, 2005), 이를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만한 자료가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의 경우에도 독자의 반응이 박은식의 <안중근전>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갖는 문학사적 성격을 검토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그 영향력의 실제 면모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안중근을 소재로 한 문학은 전통적인 傳을 포함한 각종 전기 문학과 연극·영화 등의 공연예술에서 특히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박은식이 <안중근전>을 저술하면서 참고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신문기사와 구전 자료가 중심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발굴된 전기를 비롯한 각종 詩文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안중근이 직접 쓴 <안응칠역사>를 비롯하여 시기적으로 앞선 작품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은식 당대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박은식이 참조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박은식의 <안중근전>을 참고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혔거나 텍스트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Ⅱ.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맥락과 성격

박은식은 중국 망명 이후에도 문필 활동을 계속하였지만, 국내에서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 그때그때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매체와 문자, 그리고 독자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안중근전>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한데, 그 독자로서 망명객이나 조국의 동포 뿐 아니라 중국인들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망명 초기에 서간도 지역에서 일련의 교과용 도서들을 편찬했던 일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³⁾

<안중근전>의 집필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 박은식은 많은 중국인들이 안중근의 역사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 그 직접적인 동기라고 했는데,⁴⁾ 중국인들이 간행한 '東西洋偉人叢史'의 일부로 포함된 사실은 이런 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안중근에 대해 알고자 하는 중국인들과 함께 안중근에 대해 소개해야 하는 한국인(망명객)들까지 일차적인 독자로 삼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국한혼용문이 아닌 한문으로 썼던 사정은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현재 전하는 자료가 최초의 원고와 형식적인 면에서도 일치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최초의 원고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1914년 상하이의 大同編輯局에서 간행한 『安重根』에 다시 수록한 것만이 현재 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저자 또한 '창해노방실(滄海老紡室)'이라는 필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이 책에는 박은식의 글 이외에도 여러 사람의 시문이 함께 실려 있는데,⁵⁾ 이를 통해 1912년 무렵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에 대한 감상까지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연변과 중앙아시아 등에서도 발견되

- 3) 박은식은 1911년 5월에 서간도 지역에서 교과서적 성격을 지닌 역사책인 「渤海太祖建國誌」, 「明臨答夫傳」, 「泉蓋蘇文傳」, 「夢拜金太祖」 등을 편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동창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박은식은 독자의 성격에 맞게 주로 국한혼용문을 사용하였다. 같은 시기에 「東明聖王實記」를 썼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또 『백암박은식전집』에는 한문본인 「大東古代史論」과 「檀祖事攷」도 실려 있는데, 이들은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檀祖事攷」는 박은식의 글이 아닐 가능성이 지적된 바도 있다. 이상에 대해서는 김도형(2001)과 황재문(2004)를 참조할 수 있다.
- 4) 박은식, 「안중근전」, 1면, 『백암박은식전집』 3, 66면. “自余之來此也, 凡官紳學生農商工賈之流, 無不以重根之事垂問. 以吾韓人而不能舉其歷史, 則亦烏可謂之有人心耶.”
- 5) 책머리에 章炳麟(1869~1936)의 「安君碑」를 옮기고, 이어서 제사(題詞), 도화(圖畫), 서문(序文), 안중근전(安重根傳), 선록(選錄), 부록(附錄)의 순서로 글을 실었다. 선록에는 신규식, 김택영, 梁啓超 등의 시문과 『민우일보(民吁日報)』의 논설 등이 있다. 부록에는 1913년의 추도회에서 읊은 안중근을 기린 시를 실었는데, 한글 활자가 없어 한문으로 된 것만 수록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시문과 자료가 모두 박은식의 <안중근전>과 연관된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우며, 따라서 그 내용이 곧 박은식의 원고에 대한 감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배포 범위는 일반적인 상상보다 넓었을 것은 아닌지 짐작해볼 수 있다.⁶⁾

형식 측면에서부터 작품에 접근해보자.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만한데, 앞서 언급했듯이 독자층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중국에서 한글 활자를 구하기 어렵고 현전하는 자료가 재수록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한문본이 아니었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다. 제목에 '傳'을 붙인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미 1911년에 작성한 <명림답부전>이나 <천개소문전>에도 제목에 '전'을 붙였지만, <안중근전>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傳'의 형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정도 또한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은식은 전통적인 전의 형식에 보다 가깝게 안중근의 생애를 기록한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사례를 『韓國痛史』의 제56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家系나 評이 다소 소략한 점은 있지만, 핵심적인 사건이나 일화들은 그대로 수록하여 인물의 생애와 됃됨이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몇 가지 오류가 두 자료에 함께 나타나며 편찬 시기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편의 글을 거의 같은 시기에 썼으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傳'의 갈래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지 혹은 문체나 갈래 등의 문제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중근전>이 전통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은 여기서 지적할 수 있다.

<안중근전>은 내용에 따라 장을 나누고 각각의 장에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서간도 망명기의 글들에서도 발견되는 형식이다.⁸⁾ <안중근전>은 '緒言'과 28장의 본문,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을 살피기 위해 우선 그 목차를 보자. 원래의 제목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고려한 간략한 번역을 함께 제시한다.

緒言(서언)

제1장 重根之出世(중근의 출생)

제2장 重根之幼年破賊(중근이 어린 시절 도적을 물리치다)

-
- 6) 윤병석(1998: 109~113)은 문헌을 발굴하기까지의 경과도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연변대학 도서관, 카자흐스탄 알마타 사회과학도서관, 개인 소장본(최서면) 등을 합하여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 7) 『한국통사』 제2편, 163~166면, 『백암박은식전집』 1, 407~410면.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의 제13장 '震動世界之義俠聲'에서는 장인환, 전명운 등과 함께 안중근을 다루었는데, 이 또한 형식면에서는 '傳'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통사』 수록본과 비교하면 일화의 수가 적고 글의 길이가 짧다.
- 8) 소제목을 붙인 점을 중국 소설의 장회체와 연관 짓기는 어려운 듯하다. 『서사건국지』에서 볼 수 있듯이 장회체의 제목은 대구와 압운을 취하는데, 박은식의 '전'에서는 이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없다.

- 제3장 重根之尙武主義(중근의 상무주의)
 제4장 重根之義俠(중근의 의협)
 제5장 日本經營韓國 及伊藤勒締保護條約之概況(일본의 한국 경영 및 이토가 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개략적 상황)
 제6장 重根之奔走國事(중근이 나라일에 분주하다)
 제7장 伊藤逼韓皇禪位勒締七條協約(이토가 한국 황제를 꺾박하여 선위하게 하고 7조의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다)
 제8장 重根之去國(중근이 나라를 떠나다)
 제9장 重根之勉勵國民團合(중근이 국민의 단합을 힘써 권장하다)
 제10장 重根之舉義(중근이 의병을 일으키다)
 제11장 伊藤廢陸軍部奪司法權(이토가 육군부를 폐지하고 사법권을 빼앗다)
 제12장 伊藤視察滿洲(이토가 만주를 시찰하다)
 제13장 重根之活動(중근의 활동)
 제14장 重根之狙擊伊藤(중근의 이토 저격)
 제15장 家族及志士之遭禍(가족과 지사들이 화를 입다)
 제16장 日人之對付與重根之態度(일본인의 대처와 중근의 태도)
 제17장 日人之巧誘(일본인의 교묘한 유혹)
 제18장 二弟之面會(두 동생의 면회)
 제19장 韓國律師之嘔血(한국 변호사가 피를 토하다)
 제20장 日人之欲累韓皇(일본인이 한국 황제를 연루시키고자 하다)
 제21장 滯獄時之從容(감옥에 머무를 때의 차분하고 침착함)
 제22장 公判時之狀況(공판 때의 상황)
 제23장 各國律師之態度(각국 변호사의 태도)
 제24장 重根之最終(중근의 죽음)
 제25장 二弟之痛罵日人(두 동생이 통렬하게 일본인을 꾸짖다)
 제26장 禹德淳之歷史大概(우덕순의 역사 대강의 개요)
 제27장 重根之從弟明根(중근의 사촌동생 명근)
 제28장 李在明金貞益(이재명과 김정익)
 結論(결론)

목차에서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안중근의 생애와 주요 사건들이 확인된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출생 및 유년기(1장), 동학군과의 전투(2장), 청년기의 교유와 단체 조직(3장), 일본인과의 충돌(4장), 상하이 여행·학교 설립·서북학회 활동(6장), 군대해산 과정에서 부상자 구호(7장)9, 망명과 단지 동맹(8장), 신문에의 투고(9장), 의병 전쟁(10장), 하

얼빈으로 가는 길과 노래(13장), 이토 저격(14장), 뤼순 감옥에서의 사건들(16~21장), 공판(22장), 죽음(24장)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중근의 행적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나 해설, 주변 인물의 일화를 함께 다루었고,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나 일본 및 이토의 정책에 대해서는 독립된 장을 설정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임진란으로부터의 한·일 관계와 이토의 정략(5장), 헤이그 밀사사건과 군대해산(7장), 통감으로서의 이토의 정책(11장), 이토의 만주 시찰과 목적(12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상무주의(3장), 단합의 사상(9장)과 같이 안중근의 사유에 대해 저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논술한 예도 보인다. 이밖에 가족과 동지들의 곤욕(15장)이나 각국의 반응(23장)과 같이 안중근의 활동에 따른 주변 인물들의 상황을 언급하는 장을 두었다. 안중근의 죽음 이후에는 동료 및 후배들의 행적을 서술한 별도의 장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하얼빈의 동지인 우덕순(26장), 테라우치[寺內正毅]를 사살하고자 했던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27장), 이완용·이용구를 죽이고자 했으나 실패한 이재명·김정익(28장)의 행적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은 '전'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것들인데, 실제 『한국통사』의 제56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성은 안중근 한 사람의 생애와 활동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장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족 내부적으로는 안중근의 업적이 안명근, 이재명, 김정익 등과 같은 또다른 '안중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명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안중근의 이토 저격이 필요했던 이유를 보다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전래의 '전'의 차원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을 넘어서는' 결과는 얻은 것이 아닐까 한다.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지닌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일화의 풍부함이라고 할 수 있다. 안중근 자신의 기록인 <안응칠역사>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글들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관련 인물들의 회고담들이 다수 공개된 이후에 작성된 전기인 李준의 『安重根血鬪記』(1949)를 제외하면, <안응칠역사>의 공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는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글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일화들도 다수 존재한다. 동학군을 물리친 이후 뜻있는 청년들로 단체를 조성하고 무기를 마련해준 일화(3장), 한국인의 말을 강

9) 7장에서는 헤이그 밀사사건으로부터 군대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서술하였는데, 그 말미에 안중근이 군대 해산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이 잠시 언급된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망명의 계기로 볼 수 있기에 사건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탈하는 일본인에게 총을 겨누어 저지시킨 일(4장), 학교 설립 이후 일본 경관의 감시를 받은 일(6장), 군대해산으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안창호 등과 함께 부상자를 구호한 일(7장), 두 동생의 배움을 받으면서 조국을 떠날 때 동생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긴 일(8장),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속마음을 살피서 체포한 일(15장)¹⁰⁾, 일본인들이 한국 황제를 사건에 연루시키려 한 일(20장), 법원에서 기자와 사진사 등에게 왜곡된 기사를 쓰고 좋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도록 명령한 일(24장), 감옥의 책 속에 밀서를 숨겨두었다고 유언한 일화(24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¹¹⁾ 오늘날의 역사 연구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물론 당시의 자료 부족으로 인한 오류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지동맹에 대한 서술인데, 박은식은 의병 모집 이전에 단지동맹을 맺었다고 했다.¹²⁾ 우덕순이 단지동맹에 참여했다는 서술 또한 잘못이다(26장).¹³⁾ 안중근이 주장한 이토의 죄상을 13개조라고 한 것도 오류이다(22장). 우덕순과 조도선이 차이자거우[蔡家溝]가 아닌 쿠안청쯔[寬城子]에서 이토를 기다렸다고 한 부분이나 우덕순이 공판 이후에 함흥 감옥으로 옮겨져서 “자살”했다고 기술하고 “혹은 도주하여 모면하였다는 말도 전한다(或傳逃免)”는 주석을 붙인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다. 우덕순은 의병 전쟁 당시에 탈옥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함흥 감옥으로 옮겨졌다가 1913년에 풀려났는데(윤병석, 1999: 632), 당시의 소문과 실제 사정은 달랐던 것이다. 이 밖에 안중근이 국민단합을 호소하면서 『대한매일신보』에 투고했다고 기술한 부분도 “『해조신문』 1908년 3월 21일자”의 잘못인데, 투고한 글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거의 정확하다.

박은식은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 동시에 안중근의 평가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의 견해들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수시로 나타나지만, ‘서언’과 ‘결론’에서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10) 꿈 이야기를 했다가 체포된 의주의 노인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도 병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찾아서 처벌했다는 일화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유형이 이와 유사한 면이 있다(황재문, 2010: 328).

11) <안응칠역사>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제외한 일본인들의 악행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박은식은 일본의 만행과 탄압의 사례들을 다수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안중근과 박은식 사이의 ‘차이’일 수도 있다.

12) 앞선 시기의 전기인 「근세역사」(1910)와 박은식의 『한국통사』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보인다. 당시의 일반적인 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세역사」는 현재까지 발굴된 전기 가운데 박은식이 쓴 <안중근전>의 참고 텍스트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이기는 한데,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13) 박은식, 「안중근전」, 34면, 『백암박은식전집』 3, 101면. 단지동맹을 다룬 8장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자 12인을 얻었다.”고 서술하였지만 구체적인 인명을 들지는 않았다.

- ① 대개 안중근의 역사를 들어 논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나라를 구한 志士”라거나 “한국을 위하여 원수를 갚은 烈俠”일 뿐이라고 말하곤 한다. 나는 이러한 말로 중근의 면모를 제대로 다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근은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추고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인물이다.¹⁴⁾
- ② 내가 이 글을 쓰니 중국 언론인이 여기에 ‘세계위인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중근이 ‘세계위인’이 된 것은, 하얼빈의 한 차례 거사로 천하를 진동시켰기 때문인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중근은 이미 15세부터 의병을 일으켜 도적을 토벌함으로써 두각을 나타내었다. 국민의 문약함을 개탄하고 상무주의를 열심히 제창하였다. 나라의 위기가 이미 닥쳐왔는데도 백성들의 지혜가 아직 모자라니, 교육을 망국의 위기에서 구제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힘을 다하였다. 해외로 떠돌아다니면서 의롭고 용맹한 이들을 불러 모아, 천하에서 가장 강한 적과 싸우며 그 예봉을 받았다. 이는 文天祥과 비슷하지만, 그 일은 더 어려운 것이었다. 5보의 가까운 거리에서 나라의 원수를 직접 죽여서 육대주가 놀라게 하였으니, 張子房에 비해서도 그 열행은 더 빛나는 것이었다. 감옥에 여러 달 갇혀 있으면서 위압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로움에 유혹당하지 않으면서 태연히 仁을 이루었으니, 이는 문천상이 절개를 온전히 했던 것과 같다. 아아. 이것이 바로 세계의 위인이 된 까닭인 것이다. 만약 저격한 일 한 가지를 가지고 형가나 섭정의 무리에 비긴다면, 원통한 일일 것이다.¹⁵⁾

박은식은 안중근을 ‘지사’나 ‘열협’으로 간단히 평가하거나 하얼빈에서의 거사를 들어 형가나 섭정과 같은 자객의 부류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안중근에게서 이러한 평가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는데, ①에서는 ‘평화의 대표로 자임했다는 점을 들었고 ②에서는 ‘세계의 위인’이 될 수 있음을 다양한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논증하였다.

두 가지 답변은 어느 정도는 중복된다. 평화의 대표라면 일반적인 위인들보다 높은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평화의 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선명하지 않다. 평화의 파괴자인 이토를 쓰러뜨렸으므로 평화의 대표라는 논리가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이

14) 박은식, 「안중근전」, 1면, 『백암박은식전집』 3, 66면. “夫據安重根歷史而論之, 亦曰死身救國之志士而已, 爲韓報仇之烈俠而已. 余以爲未足以盡重根也. 重根具世界之眼光, 而自任平和之代表者也.”

15) 박은식, 「안중근전」, 37면, 『백암박은식전집』 3, 104면. “余述此篇, 中國言論家取而名之曰, 世界偉人傳. 夫重根之爲世界偉人者, 以哈爾濱一舉, 振動天下歟. 曰唯唯否否. 重根自十五歲, 已以舉義討賊, 現其頭角. 慨國民之文弱, 卽以尙武主義, 熱心提唱. 逮夫國危已迫, 民智猶穉, 則欲以教育爲救亡之第一, 奔走竭力. 飄零海外, 號召義勇, 戰天下莫強之敵, 直犯其鋒, 則仿之文山, 其事尤難, 手殫國仇於五步之間, 震驚六洲, 則較之子房, 其烈尤光. 滯獄累月, 不怵於威, 不誘於利, 從容成仁, 則與文山之全節同. 嗚呼. 此所以爲世界偉人也. 若以狙擊一事, 擬諸荊藁之類, 則冤矣.”

는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몇 가지 일화들에서 숭고하거나 때로는 다툼보다는 평화를 취하는 듯한 태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 평화”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안중근의 글인 「동양평화론」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박은식이 안중근의 “동양 평화”의 주장이 가진 실체적 면모를 파악할 수 없었고 때문에 다소 선언적으로 안중근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인 鄭沅이 1921년 무렵에 상하이에서 출간했다고 추정되는 『安重根』와 대비된다. 鄭沅의 책에 수록된 글들에서는 안중근을 의협이나 열사의 관점에서 칭송하면서도 ‘개인적인 자객행위’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데(김춘선, 2009), 그러면서도 ‘삼국 평화회의[三國和會]’의 주장을 다룬 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평화의 대표로 선언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했음에도 결국 형가나 섭정의 동류로 파악하는 관점을 취한 것이다.

물론 박은식이 정원이 얻은 자료를 확보했다면 새로운 논리가 얼마나 추가되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도 또한 미인의 무릎이 아니라 안중근의 손에 죽어서 오히려 잘되었다고 평가하거나(13장) 안중근을 왜곡하는 일본인 기자나 사진사들에 대해 화를 내는 동생들을 향해 “모두 자신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달래는 안중근의 모습을 그려낸 장면(24장) 등을 보면, 박은식이 생각하는 동양 평화에는 어느 정도는 의협이나 열사의 관점도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안중근은 평화의 대표이다’라는 인식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즉 박은식이 자신의 평가에 걸맞은 형상으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표현해 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전’의 형식이 보다 적절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Ⅲ. <안중근전>의 수용 양상과 영향력

A. 축약과 번역의 사례 : 김하구의 <만고의사 안중근전>

박은식의 <안중근전>은 초기 안중근 전기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힌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중근』에 이미 이 전기에 대한 여러 사람의 독후감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필사가 아닌 인쇄본으로 유통되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접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망명객들 사이에서는 이를 더 보급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글을 번역하고자 한 두 차례의 시도를 통해 확인된다. 1917년 러시아 지역에서 이루

어진 단행본 간행과 1920년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신문 연재가 그것이다.

완결되지는 못했지만 번역의 이유를 명시한 『독립신문』(상해판)의 사례를 잠시 먼저 살펴보자. 임시정부의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간행되던 『독립신문』에서는 1920년 6월 10일, 17일, 20일, 24일자의 4회에 걸쳐 국한문으로 옮겨서 연재하였다. 그 첫머리에서 밝힌 전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此書는 白巖 朴殷植先生의 著述로 中國에서 發刊된 지 임의 數年이라. 血流壯語는 筆墨에 淋漓하고 英魂毅魄은 天地에 磅礪하다. 實로 近世에 英豪義俠을 研究하는 好材料요 東亞風雲의 關係를 詳示한 良史이다. 同時에 倍達民族을 爲하여 大韓國을 爲하여 우리를 爲하여 神聖한 血로 祖國江山을 몰디리고 正義의 彈으로 世界萬國을 놀내인 亞洲第一義俠 安重根 氏의 略歷이라. 우리는 此書를 讀할 때에 尊嚴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本篇을 譯하기 前에 먼저 中國 諸名士의 序文과 白巖 先生의 緒言을 述하노라.(『(상해)독립신문』, 1920년 6월 10일자.)

흥미로운 점은 밑줄 친 부분이 『안중근』의 간행사와 유사하다는 사실이다.¹⁶⁾ 중국인들이 제시한 간행의 의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새로 '배달민족'을 위한 말을 덧붙인 셈이 된다. 『독립신문』에서는 "중국 여러 명사의 서문"을 번역에 포함시키겠다고 했고, 실제로 <안중근전> 본문 이외에도 중국인들의 서문을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인들과의 협력 및 상호이해가 요청되었던 상하이라는 공간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해볼 만한 여지는 있을 듯하다. 번역이 완결되지 못하였기에 번역 작업의 구도와 목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¹⁷⁾ 4회분만으로도 『독립신문』에서 <안중근전> 뿐 아니라 『안중근』의 의의에 대해 주목했으리라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번역이 완결된 사례는 이보다 앞선 1917년에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의 '韓人新報社'(관권란)에서 간행한 국문 전기집인 『愛國魂』(석인본)에 번역문이 실렸다. '애국혼'이란 "나라를 사랑하여 몸을 바치고 죽은 혼"(윤병석, 1999: 396)을 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민영환, 조병세, 최익현, 이준, 이범진, 이재명, 안명근의 전기와 함께 안중근의 사적을 담은 <만고의사 안중근전>이 포함되었다. 관권란의 編書者로 '玉史', 머리말의 필자로 '檀玉生', 발문의 필자로 '檀玉'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한인신보사의 주필 金河球로 추정된다(윤병석,

16) 『백암박은식전집』 3, 30면. "血流壯語, 淋漓于筆墨, 英魂毅魄, 磅礪乎天地. 實爲研究近世紀中, 英豪義俠及國民心理之好材料. 厥近年東亞風雲之密接關係, 亦可由此書攷得而知之."

17) 제4회는 1920년 6월 24일자(제86호)에 실렸는데, 이후 한 동안 신문이 발간되지 않았다. 속간 이후의 첫 호인 12월 18일자(제87호)에는 "간도사변" 즉 間島慘變 관련 기사만을 실었다. 이때 <안중근전>의 번역도 중단된다.

1999: 41).

먼저 편찬 동기와 방식을 밝힌 머리말 부분을 살펴보자.

일. 이 책은 이국자의 정신을 사모하며 일흔이나 기억하기 위하여 각 력스와 전기에서 조금씩 추려 편집함.

일. 이 책은 남의 편술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곳 '민충정공전'은 소년 잡지에서, '안중근전'은 검곡 선성의 편술한 전기에서 간단하게 추리고, 그 타[其他]는 력스와 신문에서 모흔 것이오.(「이국혼 머리말」, 윤병석, 1999: 363)

“애국자의 정신을 사모하며 이름이나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일종의 겸사일 것이다. 정신을 되새기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정신과 행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8개월 만에 재판을 간행하였으니,¹⁸⁾ 상당한 호응이 있었던 듯하다. 전기의 내용을 새롭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책과 전기를 참고하여 편집하겠다고 했고, 특히 민영환의 전기는 『소년』에서, 안중근의 전기는 검곡 박은식의 전기에서 간단하게 추렸다고 했다.

안중근 전기를 “간단하게 추린다”는 것은 이중의 작업을 의미한다.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한문본이기 때문에 우선 번역을 해야 하며, 『애국혼』에 적합한 부분을 가려내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抄譯”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추리는” 과정이 어떤 정도의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해 “단순한 초역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¹⁹⁾

박은식의 <안중근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본문의 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자. 다음은 군대해산 명령을 받은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한 이후에 벌어진 충돌과 안중근의 구호활동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²⁰⁾

① 병사들이 모두 노기충천하여 다투어 탄환을 가져다가 일본군과 격렬히 싸웠다. 3시간 만에 대위 가지와라[梶原]와 그의 병사 2백여 명을 사살하였다. 일본인들이 크게 노하여, 즉시 3천여 명으로 포위하여 공격하고 기관포를 열어서 요란하게 쏘아대었다.

18) 『안중근전기전집』에 실린 『애국혼』의 판권란에는 '4250년(1917) 12월 초간, 4251년(1918) 재판(再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 이만열, 「해제」, 『백암박은식전집』 제3권, 14~15면. 이만열은 목차가 같지 않고 첨가한 부분이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토의 죄상을 열거하는 대목과 안중근의 죽음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첨가의 사례를 찾았다.

20) 원문에는 '朴勝煥'으로 표기되어 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韓國痛史)』에서도 같은 표기를 사용하였다.

서울에 있던 모든 일본인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무기를 들고 나와서 聲勢를 도왔다. 한국 병사 가운데 죽은 이가 170여명이었는데, 후원이 이미 끊어지고 탄환 또한 떨어지니 곧 산성을 향해 흩어져 달아났다. 일본인들은 유감이 풀리지 않아 한국 병사를 수색한다는 핑계로 민가에 난입하여 살육을 자행하였다. 포연이 하늘을 메우고 비린 피는 땅을 가득 채웠다. 하늘은 흐렸다가 비를 뿌리고, 성 전체가 울부짖고 통곡하였다. 아 참혹하도다. 이때 증근은 평양에서 나라에 변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서울로 들어와 남문 밖 제중원에 머물렀다. 이날 이 참상을 보았으니 슬픔이 어떠하였겠는가. 포성이 조금 멈추자, 즉시 안창호, 김필순, 그리고 미국인 의사 몇명과 함께 적십자의 표를 두르고 싸움터로 뛰어들었다. 다친 사람들을 부축하여 제중원으로 들어와 치료받게 하였는데, 모두 50여명이었다.²¹⁾

- ② 슈탄[술한] 병졸이 크게 격분하여 막우[마구] 일병(日兵)과 접전하나 일병은 삼천여명이요 한병(韓兵)은 겨우 一백 七십여인이라. 모다 들[도]륙을 당하니 피가 따[땅]에 차고 곡성이 장안을 움직이더라. 이딴 의사는 평양에 있다가 급히 서울에 와서 이 비참한 형편을 보고 더욱 울분하여 일변 적십자 표를 띄고 신사 안창호, 김필순 등으로 합력 전장에 나아가 탄환을 무릅쓰고 한병(韓兵)의 부상한 자 五십여명을 구원하여 제중병원에 치료케 하더라.²²⁾

①은 박은식의 <안중근전>이며, ②는 김하구의 <만고의사 안중근전>이다. 밑줄 친 부분은 거의 유사하므로,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①의 주된 내용은 '㉠ 박승환의 자결 소식에 한국 병사들이 무장하고 전투를 벌여 대위를 포함하여 일본군 200명을 사살하였다. ㉡ 일본군 3000명이 기관포를 동원하여 포위공격을 벌여 한국 병사 170명이 죽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 이 때 서울의 일본인들이 모두 무기를 들고 나섰다. ㉣ 일본군이 보복에 나서서 민가에 난입하여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였다. ㉤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은 피와 곡성으로 가득하였다.'로 정리할 수 있다.

②에서는 해당 부분의 분량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서술 속에 담긴 핵심적인 정보 또한 달라졌다. 박은식의 전기에서 수용한 부분은 ㉡와 ㉣의 일부이며, 나머지 세 부분은 누락되었다. ㉣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그 맥락이 달라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②에서는 군대 해산에 항의하는 병사들이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패배하였고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는 것만을 서술한 셈이어서, 일본인들의 단합이나 악행과 같은 요소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표현이 바뀌거나 빠진 것은 있지만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이날 참상을 보았으니 슬픔이 어떠하였겠는가(是日觀此慘狀, 悲○

21) 박은식, 「안중근전」, 11면, 『백암박은식전집』 제3권, 78면.

22) 김하구, 「만고의사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372면.

何如)"와 같이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정을 대변한 표현이 빠졌고 미국인 의사들이 함께 치료에 참여했다는 정보가 누락된 정도이다. 적어도 '안중근의 행동'에 대해서는 <안중근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요컨대 「만고의사 안중근전」은 안중근의 행적에 집중해서 서술 분량과 범위를 조정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때 역사적 상황이나 안중근의 활동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박은식이 안중근의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끌어들었던 요소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입전 대상 인물에 집중한 묘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박은식이 밝히고 드러내고자 했던 일본의 악행이나 안중근의 침착하고 평화적인 대응의 면모 등을 삭제한 것이 되기도 한다. 표현에 있어서의 장점과 정보량에 있어서의 단점이 나타나는 것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작품 전체로는 어떠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하구의 <만고의사 안중근전>과 박은식의 <안중근전>의 목차 및 내용 차이

목차	<안중근전>	<안중근전>과의 차이
1. 의사의 성장 (義士의 生長)	1장	① 서두의 한국 역사 서술 부분 누락 ② 장량, 유유, 우로의 처 등의 사적 누락
2. 의사의 무협 (義士의 武俠)	2장	①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표현상 일부 차이 ② "時宰相, 有估公穀爲私利者, 泰勳截爲兵餉"을 "이 싸움에 쓴 군량은 어느 탐관의 공곡을 취하여 썼더니"로.
3. 의사의 의용 (義士의 義勇)	3장, 4장	① 3장은 요약 제시('상무주의' 연설 및 평가 부분 누락) ② 사건에 대한 박은식의 해설 부분 누락[박은식은 '민기(民氣)'를 살피는 간첩 행위로 해석]
4. 의사의 나라근심 (義士의 憂國)	5장 일부, 6장	① 5장에서는 반종례(潘宗禮)의 일화만 수용 ② 을사조약 후의 순국인사에 대한 서술은 첨가
5. 의사가 고국을 떠남 (義士가 故國을 離함)	7장, 8장	① 6장의 '서북학회' 부분을 서두로 삼음. 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서술은 누락. ② 7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누락. ③ 8장의 아우들에게 부탁한 내용은 누락(남대문 정거장이별 장면만 제시)
6. 헝삼위에 왓슴.	8장 후반부 9장	① 북간도에서의 활동은 추가 서술. ② 9장의 내용은 4행으로 요약 제시.
7. 의사가 의병을 이르킴 (義士가 義兵을 擧함)	10장	① 이범윤, 최재형의 이름은 추가 서술. ② 후퇴 장면 자세하나 대세(代洗) 일화는 불분명함.
8. 의사의 활동	12장, 13장	① 12장의 구체적인 정세는 생략.

(義士의 活動)		② '쿠안청쓰[寬城子]'를 '차이자거우[蔡家溝]'로 고침. ③ 말미의 해설 부분은 새롭게 쓴 것임.
9. 의사가 이등을 쏘 (義士가 伊藤을 射함)	14장	① 총을 맞은 이토의 육설("馬鹿") 장면은 누락 ② 이토 저격 서술 후에 필자의 감상 추가 서술. ③ "大韓國民"을 "평양 사람"으로, "韓國有人"을 "한국에 큰 인국 영웅이 있다"로 바꿔서 표현. ④ 사진과 관련된 일화를 더 자세히 서술하고 '이토의 아들'이 사진을 사갔다고 서술.
10. 연루의 형편 (連累의 形便)	15장	① 하얼빈에서 체포된 사람의 이름을 일부 제시. ② 서북학회에 대한 수색 일화는 요약 제시. 배경에 대한 서술은 누락.
11. 의사를 심문함 (義士를 審問함)	16장, 17장	① 일본의 반응과 술책에 대한 서술은 누락. ② '이토의 죄상'을 13조에서 15조로 바로잡음. ③ 심문 과정의 일화는 일부만 수록.
12. 의사의 두 아우와 변호사	18장, 19장, 20장	① 사건의 개요만 추려서 제시함. ② 변호사 문제 등에 대한 해설은 누락.
13. 의사가 옥에서 종용함 (義士가 獄에서 從容함)	21장	문천상의 고사를 포함한 박은식의 의론 부분은 누락
14. 의사가 공판을 당함 (義士가 公判을 當함)	22장 및 23장 말미	① 안중근의 답변 중 "대장은 관동 사람 김두성이다."고 한 부분 누락. ② 23장은 말미 부분만 수용.
15. 의사의 최종 (義士의 最終)	24장	① 신문기사, 기자에 관한 일화는 누락 ② 일본인 변호사와의 대화 이후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추가 서술.
16. 의사의 시체 (義士의 屍體)	25장	① 요약 서술. ② 말미에 쑨원[孫文]의 시를 추가로 수록.

이상에서 정리한 차이점에 주목한다면, <만고의사 안중근전>이 <안중근전>의 단순한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번역에서 제외하거나 요약한 부분이 적지 않고, 구체적인 서술이나 표현을 추가하거나 바꾼 예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변화'에서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먼저 박은식이 제시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번역에서 누락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서언과 결론, 그리고 제11장인 '이토가 육군부를 폐지하고 사법권을 빼앗다' 및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한

26~28장 부분을 완전히 제외하였고, 3장, 5장, 7장, 9장, 12장은 일부 일화만 뽑거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번역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중근이 제시한 '이토의 죄상'을 13개조가 아닌 15개조로 바로잡았고, 우덕순 등이 대기했던 곳의 지명을 바로잡았다. 이는 1917년의 '편집자 김하구'가 1912년 무렵의 박은식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한 표현이나 정보를 추가하거나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셋 정도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는 간도에서의 활동을 언급하며 "천주교 목사"가 안중근을 경계했다는 일화를 거론한 부분(6장)이며,²³⁾ 둘째는 '이토의 아들'이 사진을 사갔다고 한 일화를 제시한 부분(9장)이다. 셋째는 의병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범윤과 최재형은 거론하고 김두성에 대한 진술은 누락시킨 부분(7장, 14장)이다.²⁴⁾

<만고의사 안중근전>에서 <안중근전>을 요약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새로 쓴 부분은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 김하구 자신의 견해나 감상을 담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보인다.

- ③ 슬프다. 이등박문은 일본에 유신공신이요 한국에 처음 통감으로, 모다 큰 정치가라고 일을뻔더러, 이번 만주 거름에는 큰 야심을 꾀라고[퍼려고] 흐든 차에 한국 의사 안중근의 손에서 먼저 저의 명예를 더 빛나게 되얏으니, 이난 하늘이 지시하야 의사의 의협담용을 한 번 써보게 기회를 줌인 듯하더라. (「만고의사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379~380).
- ④ 쾌하다, 장하다. 단총 여섯 방을 한 알도 실수 없이 다 원수를 맞치니 의사의 담용과 총쏘는 솜씨는 만고에 없을뻔더러, 아마 빅두산 정령이 도아서 의사의 큰 소원을 이룬 듯하더라.(만고의사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381.)
- ⑤ 마즈막에 옥리가 유언을 무른디, 디한국권 회복과 동양 평화 두 말 뿐이더라. 인하야 의사는 시로 지은 한국명주 옷을 입고 종용하게 형디에 나아가니 골고다에서 예수씨가 십자가에 못박힘과 같이 되니, 아떡 의사의 나흔 설은 두 살이오 이 날에 하늘이 흐리며 광풍이 크게 불더라.(「만고의사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394~395.)

③과 ④에서는 저자 자신의 감상 혹은 견해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둘 모두 안중근에

23) 김하구, 「만고의사 안중근전」, 『안중근전기전집』, 373면. "의사는 서울서 떠나 먼저 북간도에 당도 하야 사회와 교육을 만이 권면하고 비밀사상을 크게 고동하야 심지 천주교 목사는 의사를 멀리 하라고 그 교인들에게 신칙한 일이 잇엇더라."

24) 김두성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는 상황이다. 「만고의사 안중근전」의 기록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공인물설' 또는 '최재형설'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칭송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토를 쓰러뜨린 공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뛰어난 사격술에 대해 칭송했다. 김하구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하구의 안중근에 대한 평가 및 관심의 초점이 이토 저격 사건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⑤는 안중근의 죽음을 서술한 대목이다.²⁵⁾ 박은식의 <안중근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김하구가 새롭게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안중근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견주고 있는데, 이 비유에 나름의 인물 평가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간도에서 “천주교 목사”를 언급한 점까지 고려하면 김하구는 기독교와 관련성 또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안중근에게 최상급의 평가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만고의사 안중근전>은 안중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하되 새로운 정보와 견해를 첨가함으로써 ‘원작’과는 다른 형태로 안중근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안중근’의 면모보다는 민족의 원수를 제거한 영웅 즉 지사나 열협의 범주에서의 안중근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안중근을 바라보는 김하구의 시공간적 위상 변화와 연관된 것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지닌 불명확성이나 “신교교환시대”적인 갈래적 특성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B. 참고와 변용의 사례 : 영화 <애국혼>

중국에서 간행된 박은식의 <안중근전>을 읽은 독자 가운데는 망명 중이었던 문인 金澤榮이 있었다. 김택영이 안중근을 다룬 작품을 여러 편 남겼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 가운데 하나인 <安重根傳>(1916)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 있다.

병진년(1916). 처음 경술년(1910)에 “滬報”에 의거하여 이 전을 지었다. 그런데 근래 安烈士의 벗인 박은식이 기록한 글 한 편을 구하여 살펴보니, 내가 쓴 글에 잘못된 곳이 매우 많았다. 그런 까닭에 고쳐서 짓는다.²⁶⁾

25) 「만고의사 안중근전」에서는 이 대목 앞에 안중근과 일본인 변호사 사이의 짝막한 문답이 서술되어 있는데, 둘 사이의 문답은 박은식의 「안중근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 전하는 심문 관련 기록에서 유사한 일화를 찾아볼 수 있다. 1917년 무렵에는 이 일화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26) 김택영, 「안중근전(安重根傳)」, 『안중근전기전집』, 444면. “始庚戌據滬報作是傳. 近得安烈士友朴殷植所記一編考之, 則失實甚多矣. 故茲改作.”

김택영은 1910년에 이미 안중근의 전을 썼지만, 이후에 박은식의 글을 구해 보고서 자신의 글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김택영은 원래 “호보” 즉 상하이에 발간되는 『上海神州日報』를 읽고 안중근의 생애를 재구했던 것인데(김승룡, 2000; 254-255), 그 뒤에 구해 본 박은식의 <안중근전>과는 다른 정보가 많았다. 황해도 출신이며 안중근 가문과 교류가 있었던 박은식 쪽이 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²⁷⁾ 이 사례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당시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영화의 원작으로 활용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어 살펴볼 만하다. 1928년 상하이에서 제작된 <애국혼>이 그것인데,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한국 영화인 鄭基鐸(1905~1937)이 작품의 감독·시나리오·주연을 모두 맡았다. 현재 <애국혼>의 시나리오 작가가 정기탁인지 혹은 쏘昌根(1908~1975)인지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리지만, 정기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²⁸⁾ 그렇지만 이 영화의 배경에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있다는 지적은 영화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1928년 상하이로 간 정기탁은 당시 교포사회에서 읽히던 박은식의 『애국혼』을 읽고 시나리오화했다. 그는 상하이 영화계에 진출하기 위해 이 시나리오를 들고 여운형과 함께 당시 3대 영화사 중 하나인 ‘대중화백합영평공사’를 찾는다. 여운형의 도움으로 안중근 의사의 영화화는 선뜻 받아들여졌고 이 영화의 감독, 주연까지 본인이 맡게 되었다. (안태근, 2013: 29~30)

영화의 제목을 “애국혼”이라 한 것은 일본의 항의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는데(김수남, 2012: 84), 이는 사실 “박은식의 『애국혼』을 읽고”라는 주장과 어긋난다. 1917년에 간행된 전기집의 제목이 “애국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애국혼”이 박은식이 쓴 <안중근전>

27) 경술본, 즉 1910년에 쓴 전의 주석에서 “대개 박은식이 본래 안중근과 같은 황해도 사람이며 또한 안중근의 형제와 서로 잘 지낸 즉, 그 기록한 바가 반드시 사실을 것임을 가히 알 수 있다(蓋朴本與安同爲黃海道人, 而又與安之兄弟相善, 則其所記之必實, 可知矣.)”고 했다.(김승룡 편역, 『송도인물지』, 255면)

28) ‘전창근설’은 김수남 (2012). 상해파 조선영화인 : 정기탁의 작품세계론 고찰, 『영화연구』 52, 한국영화학회, 87 및 95~96 참조. ‘정기탁설’은 안태근 (2013). 한국영화 100년사, 북스토리, 30~32 참조. ‘정기탁설’은 이경손의 조감독 출신인 최채와의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는데, 안태근이 전창근이 각본을 쓴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채는 정기탁이 각본을 썼고 여운형의 도움으로 영화화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중국 측의 자료에서는 정기탁(中國電影大辭典)과 錢昌根(中國電影發展史)로 각기 달리 나타난다. 최채의 인터뷰가 상대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라는 점, 그리고 영화 <애국혼>의 내용이 전창근의 1959년작 <고종 황제와 의사 안중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탁설’이 좀더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의 별칭으로 통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영화사에서 기록된 “애국혼”이 “안중근(전)”의 오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영화 <애국혼>의 필름이나 시나리오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 13장의 스틸사진만 남아 있을 뿐이며, 중국의 영화사전에 대략적인 줄거리만 전할 뿐이다. 우선 그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

- (1) 魏國 사람 滕博文이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정계에 투신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국가의 대권을 잡고 新政을 펴서 국세가 날로 떨치게 되었다. 마침내 중국 만몽지구를 침략할 것을 추진하였다.
- (2) 위국과 중국 사이에는 黎國이 있었는데, 등박문이 여국의 대신 黎庸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여국 국왕을 협박하여 賣國條約을 맺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등박문은 監督의 신분으로 여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控制]하게 되었다.
- (3) 어느날 등박문이 여국의 경성의 某 大旅社[여관]에서 여용과 여국을 더욱 강하게 장악[控制]할 것을 상의하였는데, 이 소식을 여국의 애국지사 夏鼎醇이 탐지하여 黃海省의 망족인 晁永鎮과 그 아들인 晁仲權에게 전했다. 이에 세 사람이 등박문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 (4) 안영진과 우정순이 먼저 경성에 가서 등박문이 머무는 여관에서 살해하려 하였는데, 불행히 실패하여 안영진이 체포되어 희생되었고 수백의 지사들이 연루되어 살해되었다.
- (5) 안중권은 국가와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 홀로 상하이로 건너가서 중국의 혁명가 朱漢龍과 협력[關絡]하였는데, 두 사람은 뜻이 맞아서 막역하게 되었다.
- (6)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여국 경성으로 가서 다시 등박문을 저격하였는데, 비록 명중시키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
- (7) 안중권, 주한룡, 하정순이 여관에서 등박문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관의 한 직원[伙計]이 엿듣고 위국의 군대에 고변[告密]하였다. 안중권은 체포되고, 하정순은 총을 맞고 희생되었으며, 주한룡은 탈출하였다.
- (8) 뒤에 여관의 종업원[伙計]은 양심[天良]이 발현되어 황벽한 들판에 가서 참회하고 자살하려 하였는데, 주한룡이 구해주었다.
- (9) 주한룡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밤에 옥중에 잠입하여 안중권을 구출하였는데, 담을 넘다가 위국 병사에게 발각되었으며 여관 종업원이 총탄을 맞고 죽었다.
- (10) 안중권은 위험을 벗어난 뒤에 주한룡과 함께 잠시 바닷가에 나왔다. 안중권이 집에 들어가 모친과 여동생 晁玉實을 만나는데, 안옥실 또한 여성 영웅이어서, 오빠를 따라 대사를 도모하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 (11) 안중권, 주한룡 등 4인은 두만강[圖江]에 이르러 애국지사 張一成의 집에 숨어지냈는

데, 뜻밖에 위국의 정탐병에게 발각되어 체포될 지경에 이르렀다. 총격전이 발생하여 장일성이 급소를 맞았는데, 죽음에 임하여서 안중권 등을 탈출하도록 하였으며 11세의 아들을 안중권에게 맡겨서 홍콩에 데려가도록 하였다.

- (12) 홍콩으로 가는 도중에 주한룡, 안옥실은 환란 중에서도 사랑하게 되었다.
- (13) 안중권은 홍콩에서 지사 劉冬夏의 집에 머물면서 의용병 수천명을 초모하였고, 두만강[圖江] 부근에서 진을 치고 기회를 기다렸다.
- (15) 하루는 안중권, 주한룡 등 4인이 강을 건너서 정탐을 하였는데, 긴밀하지 못하여 주한룡이 체포되었다.
- (16) 주한룡이 혹형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한룡이 두 눈을 찔린[刺瞎] 뒤에 안중권과 안옥실에게 구조[救回]되었다.
- (17) 얼마 뒤에 안중권이 의용병을 이끌고 강을 건넜다가 러시아 신문에 등박문이 합이빈에 가서 은밀히 남북만주를 瓜分하는 조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을 보았으며, 이에 안옥실과 주한룡에게 알려서 합이빈으로 가서 저격을 하였다.
- (18) 마침내 저격에 성공하여, 등박문은 총을 맞아 죽고 안중권은 체포되어 의롭게 죽었다.²⁹⁾

大中華百合影片公司의 1928년작 무성/흑백 영화라는 설명과 함께 제시된 이 줄거리에서는, 박은식의 <안중근전>(또는 애국혼)이 원작이라는 주장이 의심될 정도로 박은식의 글과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國名과 人名을 바꾼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이다. 일본을 위국으로 한국을 黎國으로 바꾸었는데, 혹 검열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관객은 어떤 나라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安重根은 晏仲權으로, 伊藤博文은 滕博文으로,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은 晏永鎮으로 바꾸었는데, 이 또한 유사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어서 관객에게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지만 가공인물의 설정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줄 만하다. 안중근의 여동생인 晏玉實은 鄭一松(金一松)이 맡은 배역으로 여주인공에 해당하는데, 박은식의 글에서는 물론 다른 작품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안옥실의 연인이 되는 중국 혁명가 朱漢龍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중문화의 속성 상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소재가 끼어드는 것은 그리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닌데,³⁰⁾ 중국인 남성 조력자와 한국인(여

29) 張駿祥·程季華 主編, 『中國電影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5. 김수남(2012: 95)도 영화의 줄거리를 정리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수남은 그 출처를 "(程季華) 『中國電影發展史』 1, 중국전영출판사, 1981"로 밝혀두었다.

30) 한국의 현대소설에서는 안중근에게 감화 받은 기생이 사모하면서 따르는 역할로 등장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안웅칠역사」에서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고종 황제와 의사 안중

국인) 여성 간의 애정을 설정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³¹⁾

중심인물들이 실제와 달라졌으므로, 이들이 엮어내는 주요 사건들도 실제 역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려진다. 안중권[안중근]이 여국 수도[경성]에서 등박문[이등박문]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두 번이나 실패하였다고 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아버지 안영진과 수백 명의 동지들이 처형되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정순[우덕순?]이 희생되고 안중권이 체포되었다. 배신했던 여관 종업원이 희생하면서 안중권이 탈출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서, 결국에는 안중권[안중근]이 여동생과 중국인 조력자를 이끌고 하얼빈으로 가서 등박문을 죽였다는 것이 그 결말이다. 주인공의 계획이 거듭 실패하고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벗어나면서 관객들에게 긴장과 흥미를 느끼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내용은 정확한 역사의 재현을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창작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애국혼>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한때 박은식의 작품으로 오해되기도 했던 <英雄淚>(1911)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는 雲在霄(조선의 충신, 안중근의 친척)와 侯彌(미국 유학생 출신 의병장, 안중근의 후견인)이라는 조력자가 김옥균 등의 실존 인물과 함께 등장하고, 안중근은 미국 유학을 마친 뒤에 결국 아버지의 원수인 伊藤博文을 죽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성급하게 이토를 죽이려 하던 동지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안중근이 죽은 뒤에는 동지들이 그 시신을 빼앗아 안장하기도 한다. 이완용의 속임수로 인해 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45만명의 의병을 모아서 일본 육군과 일전을 겨루었지만 실패한 지도자들이 구원을 청하기 위해 미국 동포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 결말이다.

두 작품 모두 안중근의 생애, 그리고 박은식의 <안중근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유독 <애국혼>에서는 안중근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공간이 등장한다. 홀로 상하이로 여행을 떠나 중국의 혁명가를 만난다는 것은 1905년에 있었던 안중근의 중국 여행과 유사하다. 안중권[안중근]이 돌아간 바닷가의 집은 진남포의 공간과 겹칠 수 있다. 무엇보다 두만강 부근의 의용병 활동은 안중근의 의병 활동을 연상시킨다. 러

근>(1959)에서는 최재형의 딸이 안중근을 흠모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유동하와 눈빛을 주고받는 시골 처녀의 모습이 잠시 노출되기도 한다. 일본의 회화 <안중근>(1931)에는 안중근의 情婦이자 동지로 유여옥이라는 기독교 학교 출신의 여성(27세)이 등장한다.

31) 뮤지컬 <영웅>(2009)에는 안중근을 사모하는 중국인 처녀 링링이 등장하는데, 링링은 안중근의 중국인 동지(조력자)인 왕웨이의 동생으로 설정된다. 작품 내에서는 유동하-안중근-링링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된 관계가 표현되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흥미와 관련된 요소이다. 그렇지만 안중근이 중국인들에게도 환영받고 존경받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도 있다. 물론 상하이에서 나라를 잃은 한국인이 만든 영화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애정”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시아 신문에서 등박문[이등박문]의 소식을 접한다는 것도 실제 사실과 거리가 멀지 않다. 영화의 흥미, 특히 활극적인 요소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명이나 활동들이 굳이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을 영화 속에서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배경과 사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안중근의 활동, 역사적 사건과 그 배경을 글로 읊긴 박은식의 저작, 그리고 여러 층위의 제약 속에서도 안중근을 이미지로 읊긴 상하이 망명 영화인들의 영상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현재로서는 박은식의 <안중근전>과 영화 <애국혼>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출신의 영화인들이 약 20년 전의 사건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찾아내고자 한 노력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으며,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그러한 자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음은 증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참고나 번역 이상으로 그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IV. 맺음말

박은식의 활동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문필 활동 또한 그 정확한 위상을 지적하기 어려울 만큼 옛 것과 새 것의 사이에서 움직인 과도적인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박은식 문학이 지닌 유동성이 당대의 시공간적 환경에 대응한 산물이라는 관점 하에서, 그의 <안중근전>이 지닌 당대적 성격을 해명하고 그 영향력의 방향성을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안중근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전'이라는 전통적인 갈래를 내세우면서도 인물의 생애를 담아내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려 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의 한국인 독자를 위해서는 한문산문으로서의 '전'의 전통과 국한혼용문의 표기를 결합시켰던 바 있었지만, 중국인 독자까지를 고려하게 되면서는 인물의 생애를 넘어서서 조선의 역사를 내용에 포함시키고 다시 한문 표기를 취했던 점이 박은식이 기울였던 노력의 면모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중근전>의 장점이나 가치가 풍부한 일화와 역사적 안목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당대적 맥락에 충실한 형식적 시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안중근전>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번역을 통한 소개와 문학예술 창작 등에서의 활용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두 경우 모두 당대 상황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원작

의 변이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원작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문을 한글로 옮기는 번역은 기본적으로 한국인 독자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번역자의 의도 즉 인물 자체의 활동에 주목하거나 중국인의 시선에 유의하고자 하는 등의 차이에 따라 축약 혹은 첨가나 배제의 현상이 달리 나타난다. 반면에 창작의 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참고의 수준이나 변용의 양상이 문학예술 갈래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박은식의 <안중근전>이 당대의 전기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박은식의 <안중근전>을 문학사적 성격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 없이 여러 작품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이 언급되었던 변이 양상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그 검토에 있어서 시대적 한계를 두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영향력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 연구, 대중 역사서는 물론이며 각종 공연예술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김도형 (2001). 1910년대 朴殷植의 사상 변화와 歷史認識. *東方學志*, 114, 253-273.
- 김수남 (2012). 상해파 조선영화인 : 정기탁의 작품세계론 고찰. *영화연구*, 52, 83-110.
- 김춘선 (2005).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109-136.
- 김택영 저, 김승룡 편역 (2000). *송도인물지*. 서울: 현대실학사.
- 노관범 (2002). 대한제국기 박은식 著作目錄의 재검토. *한국문화*, 30, 263-307.
- 노관범 (2007).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편 (1975). *박은식전서*.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백암박은식전집*. 서울: 동방미디어.
- 서여명 (2007). 한·중 『서사건국지』에 대한 비교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35, 158-189.
- 손성준 (2013). 전기와 번역의 종횡(縱橫): 1900년대 소설 인식의 한국적 특수성. *현대문학의 연구*, 51, 39-88.
- 안태근 (2013). *한국영화 100년사*. 북스토리.
- 牛林杰 (1999). *韓國 開化期文學에 끼친 梁啓超의 影響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유양선 (1984).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 91-120.
- 윤병석 (1998). 안중근 의사 전기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 104-144.
- 윤병석 편 (1999). *안중근전기전집*. 국가보훈처.
- 윤병석 (2002). 朴殷植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저술. *韓國史學史學報*, 6, 63-96.
- 이경선 (1985). 박은식의 歷史·傳記小說. *한국학연구*, 8, 321-341.
- 황재문 (2004). 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진단학보*, 98, 153-182.

- 황재문 (2007). 안중근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국문학연구**, 15, 189-233.
- 황재문 (2010). 전통적 지식인의 망국 인식: 김윤식·김택영·박은식의 경우. **한국문화**, 52, 315-335.
- 張駿祥·程季華 主編 (1995). **中國電影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황재문 (hwajm@snu.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임.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서의 문학의 변모 및 한국 기록문화의 특징과 변모가 주요 연구 주제임.